Short #35(본서 pp692-705)

활(핵)이 꺾인 엘람(이란)에 바람(공습)과 칼(모사드)을 보내시고 보좌를 세우시는 그리스도 I

유다의 시드키야 왕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에『엘람에 대한 주의 말씀』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의 힘의 우두머리인『엘람의 활』을 꺾으리라 (렘 34-36)

"엘람"에 대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"엘람" 땅은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일부 지역에 해당됩니다. 고대 바빌로니아와의 접경 지대로, "현재의 페르시아만 북부 — 이란의 서부 지역"입니다. **"이란이 핵으로 무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, 그 핵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이란을 공격할 것"**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**"실제 공습"**을 시작했습니다. "엘람—이란 민족"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후손 — 아브라함의 이복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으로, 이방인 "팔레스타인 민족 : 중동국가"는 아닙니다. 고대 엘람은 앗시리아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그들을 도왔습니다. 지금의 이란이 "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 — 악의 축 국가들"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그 때 그대로입니다. 고대부터 지금까지 엘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왔기 때문에 **『심판하신다는 메시지 — 이란은 심판 받을 것이라는 말씀』**을 이란이 모르고 있습니다.

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패역한 시드키야 왕은 눈이 뽑혔습니다. 패역한 시드키야 시대에 유다를 치기 위해 "엘람"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그 **『엘람의 활』**을 → **꺾으시겠다고** 말씀합니다. 엘람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말씀이지요. 그 당시 전장에서 가장 **강력한 주무기**였던 "활"은 오늘날 무엇과 같겠습니까? 현대전에서 "활"을 가지고 싸울 수도 없는 일이고, 적그리스도가 "활"로 세계를 흔들어놓겠습니까? 이 예언의 말씀을 현대에 적용하면, 그 가장 **강력한 무기**는 → **『핵』**입니다. 그러므로, 요한계시록 6 장에 적그리스도가 "활"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도 역시 **『핵무장』**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, 그 적그리스도의 "활통"은 → 비어있습니다. 즉, 있으나마나한 것입니다. 엘람의 활을 꺾으신 것이나, 적그리스도의 활통에 화살이 없는 것이나 다 같은 말씀입니다. 이 '활', 이란이 보유하고자 했던 핵무기의 제조 시설과 군사 시설은 이번 공습으로 초토화됐습니다. 하나님이 현재의 이란이 어떻게 될 지를 "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" 하시고 수 천년 전에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. 다음 시간에 이란에게 보내지는 **『네 바람과 칼』**을 설명하겠습니다.